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용역과제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가장군 학리마을)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산대 산학협력단 / 차철욱
부서/과제담당관	문화유산과 / 박은자	담당공무원	이창섭
연구방식	1. [√] 위탁형 용역	2. [] 공동연구형 용역	3. []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연구기간	2021년 4월 13일 ~ 2021년 12월 8일(8개월)		

연구결과

- 대천마을의 경우 400년간에 이르는 마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음. 대천마을은 특히 20세기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 그 계기로는 첫째, 20세기 초반 철도와 학교의 설치, 둘째 부산시로의 편입, 셋째 계몽운동과 새마을운동, 넷째 각종 공공시설(변전소, 정수장 등)의 설치, 다섯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 여섯째 2003~4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마을의 여러 사건들(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주, 임대아파트 반대 투쟁 등)을 배경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가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것 등을 들 수 있음.
- 대천마을의 근대화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이 과정에서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개발계나 생활개선구락부 등 계몽단체들이 형성. 현재 마을에서 활발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만들어놓은 궤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학리마을에서 대외적으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동해안 별신굿과 미역양식에 대한 실제 연행(演行) 모습과 구술자들의 객관적인 구술과 자료를 확보. 이를 통해서 동해안 별신굿의 연행 흐름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됨. 또 미역양식의 원조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정보를 확인.
- 1970년대 학리항 매립과 방파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의 구술을 통해서 학리항 조성 당시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했고 이와 함께 학리항 건설 사업이 4H운동과 새마을운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평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심층구술면담을 통해 마을생활사 및 주민생애사를 발굴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천마을과 학리마을의 변천과 공간적 특질, 그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양상을 복원. 연구진이 진행한 구술방법론을 기반한 개인과 공간의 상호작용 및 특수성 규명은 정책연구용역이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추진방법의 적절성**
 - 연구 수행 전 각 마을 사정에 통달한 구술자를 섭외하기 위해 2~3차례 사전조사 실시. 섭외한 구술자와는 예비면담을 추진하여 질문 항목을 구체화. 이를 기반으로 연구진은 구술자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양질의 구술자료 확보할 수 있었음.
-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용역이 충실하게 이행됨.
-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
 - 용역 수행 및 결과에 있어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는 없음.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수집된 구술 자료는 1차 사료의 성격과 가치를 가짐. 특히 마을의 역사와 삶을 함께해 온 노년층의 기억을 기록화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는 마을의 과거를 보존하고, 기존의 거시적 관점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난 미시적 관점의 밀착된 역사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음.

평가자 확인	구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명	동아대학교 전성현 교수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평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소	
	참석자				